

oo

자 료

- 서유럽의 비료산업 -

자료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97

November-December 2003

올해가 서유럽 비료 산업이 겪은 가장 최악의 해는 아니었다. 사실 몇몇의 발전 분야, 특히 EU는 *Common Agricultural Policy*를 개정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EU의 확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공장들은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 겪이고 있으며 무지개 끝에 있는 금단지에 대한 꿈도 버리고 있다.

서유럽 비료산업에서 고위 경영자들은 2003년에 더욱 나쁜 시기를 보냈으며,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로 자신들이 겪어야 할 어려운 도전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비료산업 세력가로서 또 서유럽에서 오래 생존하는 성공자로서 수많은 시장 분석가들, 산업 참여자들, 정치인들에 의해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oo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서유럽 비료산업에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드러나는 확실한 매혹적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료 산업에서의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많은 억지스러운 문제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서유럽 비료 시장의 성숙은 야심에 차고 잠재력 있는 경영자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시한다.

지역에서 소비하는 식물 영양분의 양은 지난 10년간 16백만~17백만톤/년 오르내렸으며, 미래에도 그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유럽 비료시장에 영향을 미쳐온 요소 중에 하나는 유럽 연합(EU)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었다.

1990년대 초에, CAP 개정을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휴지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중간가격을 크게 하락 시켰다.(서유럽의 비료산업, R. Bethke, Kail und Saiz. Paper presented at 26 IFA Enlarged Council Meeting, Rio de Janeiro, Brazil, 15-17 November 2000) 이러한 대책들은 농작과 비료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서유럽에서 비료 소비의 한계 수익이 하락한 것도 결과적으로 농지 비료의 더 큰 사용뿐만 아니라 더 나은 농장 내 영양소 관리를 반영한 것이었고 비료 효율을 향상 시켰다.

Bethke에 따르면, 서유럽 비료산업은 나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장 조건에 대응했다

지역별 산업의 초석 중 하나는 품질적인 통합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연장된 논쟁 후에, EU는 2003년 6월 더욱 근본적인 개정을 CAP과 동의했다. 새로운 제도는 농부들이 생산하는 양 막론의 보조금을 역경해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정이 너무 늦는다고 여길 것이다

보조금이 가시적으로는 한 해에 약 430억 유로(491억 달러)로 억제되지 않은 채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국제 무역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삼각화 것이다.

유럽 비료제조업협회(EFMA)는 개정된 CAP가 비료 소비의 약간의 감소를 초래할 것을 알고 있는 바며에 주요 벼 thuật과 비료 산업의 복합적 성장을 막으려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서

oo

야기되는 변화를 반기고 있다.

EFMA는 EU 질산비료 소비가 2004년~2010년 사이에 최대 1~2% 만큼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것은 CAP 개정이 질산비료의 소비를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이미 2002년~2012년 사이에 7% 만큼 감소하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EFMA에서 농업과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크리스천 팔리에르가 말했다.

개정된 CAP 때문에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끊길 수 있다

즉, 농부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는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 유형으로 계속 연결될 것이다. 개정된 CAP은 또한 EU 농지의 10%를 해마다 강제적으로 쉬게 함으로 하는 휴경 안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농부들은 휴경 지역에서 에너지 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예를 들면, 액체 화석연료로 쓰일 수 있는 평지씨) “ 만약 결론이 지어지면, 이것은 궁정적인 발전이다. 왜냐하면 2003년 1월, 원래 EU는 농부들이 휴경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 작물도 기를 수 없다고 정했고, 그것은 비료 사용의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 ”이라고 팔리에르가 말했다.

개정된 CAP는 몇 가지의 법안과 함께 2004년에 효력을 발생한다.

EU의 15개의 회원들은 구 시스템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07년까지 다시 바꾸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대조적으로, 영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훨씬 빨리 접할 것으로 보인다.

EFMA가 최근의 CAP 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절충 대책들이 여전히 EU의 비료 소비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o 환경법안의 제재

2002년 7월, EU위원회는 질산 지령에 대한 두 번째 공식적인 실행을 공표했다.

회원들의 실행 면에서는 확실한 향상이 보인 반면, 보고서는 토지의 수분 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결론지었고, 좀더 강력한 실행과 과중한 벌금을 촉고했다.

13개 회원들의 입장에 반하여 법률적 실행을 초기화하는 EU 위원회의 결정은 그들 중 몇몇이 질산 지령을 뒤늦게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EFMA는 이것이 2003년 비료 소비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최대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표에서 보이듯이, 더 나중이 될 것이다.

< EU의 비료 소비량 >

(단위 : 천 성분톤)

구 분	2000/01	2001/02	2002/03	02/03 대 비율 01/02
질소질	8,973	9,091	9,049	-0.5%
인산질	2,981	2,913	2,867	-1.6%
가리질	3,373	3,328	3,248	-2.4%
계	15,327	15,329	15,164	1.1%

EU에서 비료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다른 동향은 비록 실 이익은 분명하지 않지만, 유기농의 이익 증가이다.

EFMA는 비료 소비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남부, 동부 유럽에 일어날 거라 믿는다.

(C.Palliere, EFMA. IFA Fertilizer Demand Working Group, Regional Report, 2003년 3월) EFMA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다음 10년간의 서유럽 비료 소비량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R. Bethke는 서유럽을 대표하는 IFA 지역 부의장으로서 지역별 비료 소비량은 2012년 까지 2001/2002년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라 예상한다.

“높은 작물 산출 목표와 특성화된 작물 생산에는, 농장에서는 질산 비옥화 외에, 충분하고 균형 잡힌 P(인산질)과 K(가리질) 비료 투입이 생리학적 영양물 상호작용을 위해 작물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Bethke는 말한다.

(The West European Fertilizer Industry in 2002. Paper presented at 28th IFA Enlarged Council Meeting, Cairo, 10-12 2002년 12월)

//

하지만 최근 농작물 조사에 따르면, 몇몇의 EU 국가에서 P(인산질)과 K(カリ질) 영양소에 관해 농부들이 사용을 줄이고 있고, 어떤 작물에 대한 산출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가스가격 차별에 관한 이야기

지난 20년간 지역별 생산능력에 있어 엄청난 축소를 보여 왔다.

1980년에는 30개 이상의 주요 비료 생산업자들이 15.4백만톤/년의 질소질 생산 수준이었다. 20년 후에는 9.3백만톤/년의 질소질 생산 수준으로 겨우 10개의 생산업자들이 남았다.

질산 비료는 오랫동안 자급되고 있고, 질소질 비료에 있어서 서유럽 무역은 1990년 이후로 나빠졌다.

이러한 경향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기반을 얻으면서 1990년대를 걸쳐 가속화 되었다. 계속해서 규모축소가 가속화 되었다.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가스 비용은 서유럽 비료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치명적인 요소가 되었다.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가스가격은 비료 생산업자들에게 200% 가까이 폭등하였다.

지역별 비료 생산업자들이 아무런 통제나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조적으로, 러시아 가스 소비자들은 1999년 가스가 대폭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유리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이러한 매우 낮은 수준에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Bethke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가격은 국제 가스가격의 단지 1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러시아 가스가격은 국제 실시장 가격에 훨씬 못 미친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매우 논쟁 여지가 있는 문제이고, Bethke는 서유럽 비료 산업 내에 널리 보급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서는 특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유럽 가스 소비 산업에 불리한 차별은 서유럽 비료 생산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는 단언했다.

비록 EU 위원회가 가스가격 시나리오 평가를 약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료 제조

oo

업자들은 지역 내 비료의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불확실한 조화가 러시아나 동유럽 다른 지역으로부터 저가 수입품의 지속적인 쇄도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한다.

EFMA는 혈값으로 넘겨질 원료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캠페인을 벌여왔고, EU 위원회로부터 덤핑을 반대하는 몇몇의 법률을 확실시 해왔다.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약들 중 일부이다.

-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질산암모늄 수입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비아, 루마니아로부터의 요소 수입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리투아니아, 폴란드, 알제리로부터의 UAN 용액 수입
-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염화가리 수입

그러나 2002년 9월 EU 위원회는 러시아에게 “시장 경제의 최대한 허용”을 부여하였다. 서유럽 비료 산업의 많은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큰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저렴한 가스가격은 러시아 비료산업에 불평등한 우선권을 줄 뿐만 아니라, 깊은 비능률성을 내포하고 있다.

“높은 효율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세계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 가스가격을 정립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개정해야하고, 또한 견줄만한 표준을 생산해야 한다”고 Bethke는 항쟁한다.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확실히 변하지 않는 한, EU 산업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한 무역 관계에 대항하여 유럽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 ‘참조 국가’의 가격 구조를 바탕으로 잘 성립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

o EU 확대-새로운 시나리오

위에서 언급한 덤핑을 반대하는 대책들은 내년부터 훌륭한 전망을 일으킬 것이다. 위에 나열된 나라들은 EU의 완전한 회원이 될 것이다.

총 10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새로운 회원들이 EU 조직에 융합됨으로 인해 농업은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새로운 중·서유럽 회원 사이에서, 농업이 이 나라들의 GDP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입은 27%의 농업 부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구 공산주의자 정권과 경제 붕괴로 아래로, 질산의 전체 소비량 반영이 보여주고 있듯이 중·서유럽의 농업은 침체 상태이다.

EFMA는 현재 EU-15 회원들 가운데 질산 소비는 평균 73kgN/ha이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새로운 가입 국가들은 질산 소비량이 43kgN/ha 밖에 되지 않는다.

Bethke는 만약 새로운 EU 국가들 농부들이 서유럽 국가들 수준으로 증대한다면 EU의 확대로 인한 비료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유럽 비료 생산업자들은 자국과 가까워진 시장이 중·동유럽으로부터의 공급으로 인한 압력을 줄일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EU 위원회의 덤핑 억제책으로 제안된 보호막은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EU의 회원으로서는 확대될 것이다. 위원회는 폴란드 생산자인 동시에 수출업자인, Zakiady Azotuwe Pulawy에게 19/t 유로에 달하는 UAN 수입에 관한 반덤핑 세금을 이미 없앴다.

비슷하게, EU 위원회는 리투아니아로부터의 UAN 수입에 대한 반덤핑 세금 3.98/t도 폐지하고 비밀에 불여져서 최소한의 수입 가격으로 대신했다.

2004년에 리투아니아가 EU에 가입하면 반덤핑 세금은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리투아니아의 UAN 독점 생산자인 Achema에게는 환영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사는 약 800,000t/a의 UAN을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대부분은 서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된다.

EU의 반덤핑 관세에 대항하는 Achema의 성공적인 호소는 더 강한 가격 정책을 떠맡기로 약속했다.

중동부 유럽에서는 올타리가 재정비 되었고 서유럽 비료 산업 대표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크스탄 사이에서 서명 예정이었던 Economic Union Treaty를 긍정적 발전으로 받아들였다.

조약에서는 4개국 사이에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고 관세 조합, 공동의 가스 및 전력 세율 정책의 수립을 허용할 것이다.

산업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조약이 국가들 간에 무역 장벽을 없애고 우크라이나, 카자크스탄, 벨로루시에게 러시아의 싼 에너지 자원에 접근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상품의 운반에 붙는 공동 세율정책은 비료 생산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특정한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들 간에 교역을 증가시킬 것이다.

EU는 공통 가스 정책에 관련된 제안들을 환영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은 덤픽의 사고를 줄일 것이라 믿는다.

또한, EFMA는 전체 유럽 대륙을 통하여 가스 공급 지역을 평등화시키기 위해서 Pan-유럽 가스 산업의 통합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며 지원을 제안했다.

o 미래를 위한 준비

EFMA는 재정비되고 축소된 서유럽 비료산업이 수년 앞으로 다가오는 도전을 맞이하기에 좋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급과 수요가 합리적인 균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EU 확대와 그로 인해 더욱 엄격해진 시장 상태는 새로 참여한 회원 국가들의 비료 생산업자에게 서유럽 기술과 효율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것이다. 맞추지 않으면 사업을 관둬야 한다.

서유럽 비료 생산업자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긴 항해와 같지만 그들의 재정이 최근 나아졌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들은 회사를 재구성했으며 가격 효율과 고객의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평한 경쟁에 대한 EU의 방어적인 무역 조항과도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다.(The Competitiveness of the West European Fertilizer Industry, EFMA) 하지만 많은 산업 경영자들은 이익이 장기적 투자 프로그램을 유지시키기에는 충분치 않기에 걱정하고 있다.

“사업이란 것은 주기성이 있으므로 비료 산업은 사이클의 정상에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학살 이런 상황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EFMA는 언급했다.

서유럽 비료산업에서 일하는 것이 대한 유혹은 외부인들에게 항상 분명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Kemira GrowHow로 재편된 Kemira Ovi가 그의 이전 Kemira Agro를 위해 사업

oo

상 가능성 있는 파트너를 찾아왔다는 사실과 Norsk Hydro가 변동하는 Agri를 별도의 사업 단위로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이 그것의 전망을 깊게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 노래 알 칼은 작은 고통일지 라고 그것엔 빙드시 그 까닭이 있을 거라 믿고 삶은 때가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걸어낼 수 있는 고통들이 있기에 우리 삶의 행복은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닙지요

< 좋은 생각이 아름다운 55가지 이야기 중에서 >